제13강 형이상학에서 은유로 1

1. 하늘과 땅의 유비－빛을 감추는 지혜, 『노자』 7장의 예

1 天長地久, 天地所以能長且久者, 以其不自生, 故能長生.
하늘은 너르고 땅은 오래간다. 하늘과 땅이 능히 너르고 오래갈 수 있음은, 자기의 삶을 조작치 않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능히 오래갈 수 있는 것이다.

2 是以聖人後其身而身先, 外其身而身存.
그러하므로 성스러운 사람은 몸을 뒤로 하기에 그 몸이 앞서고, 그 몸을 내던지기에 그 몸이 존한다.

3 非以其無私邪? 故能成其私.
이것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? 그러므로 능히 사사로움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.

[해설]
1 김용옥은 □以其不自生□을 □자기의 삶을 조작치 않기 때문이다□라고 해석한다. 왕필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. □자생하면 다른 것과 더불어 다투게 되지만, 자생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모두 그에게 돌아오게 된다.□(自生則與物爭, 不自生則物歸也.) 하상공의 해석은 이와 다르다. □하늘과 땅만이 홀로 장구할 수 있는 것은 천지는 안정되어 있으면서 베풀되 보답을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. 이는 사람들이 살면서 자기만 부유하게 되는 이로움을 구하는데 급급하여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에게 주는 것과는 다르다.□(天地所以獨長且久者, 以其安靜, 施不求報, 不如人居處汲汲求自饒之利, 奪人以自與也.)

2-3. 여기서 왕필의 해석은 다음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.《莊子?應帝王》: □무명씨가 말하였다. □너는 마음을 담담한 상태에서 노닐게 하고 정신의 기운을 막막한 상태에 합치하게 하라. 그런 상태에서 만물의 스스로 그러함에 따르되 거기에 너의 사사로움을 조금도 개입시키지 않는다면 천하가 잘 다스려질 것이다.□□(無名氏曰: □汝遊心於淡, 合氣於漠, 順物自然而無容私焉, 而天下治矣.□)

2. 물의 비유－지혜의 원천, 『노자』 8장의 예

1 上善若水. 水善利萬物而不爭, 處衆人之所惡, 故幾於道.
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으니 물은 만물을 잘 이롭게 해주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, 뭇 사람들이

싫어하는 곳에 머무른다. 그러므로 거의 도에 가깝다.

* 仁者樂山(인자요산) 知者樂水(지자요수) , <論語(논어)>

→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.

⇒ 물: 지혜를 끌어오는 원천. 가장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물의 흐름을 통해 깨우침.

⇒ 산: 태산은 그 거대함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품어주는 존재(인자는 넓음을 지닌 자)